

[H 갤러리] AUGUST COLLECTION

8. 1. – 8. 31.

PHILIP. HAN.

David Hockney(1937 ~ , 영국)

8. 4. 수.



Diver Poster for Olympische Spiele München. 1972.

올림픽이 한 창이다. 한데 예전만큼 회자되지는 않는 듯 싶다.

거리두기 4 단계 방역 수칙 탓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개최지 때문일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럴까. 무더위 탓일까.

메타버스에 올라 타 가상현실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더 재미있어 그럴까.

굳이 다른 점 하나를 꼽자면 메달을 바라보는 시대정신이 달라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올림픽 정신을 드높이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에 더 열렬한 박수를 보내기 때문이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나부터가 그렇다.

David Hockney(1937 ~ , 영국)는 1972 년 뮌헨 올림픽 한 다이빙 선수의 극적인 순간을 화폭에 담았다. 이 작품은 1960 년 대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호크니가 '수영장'을 주제로 삼은 시절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호크니의 수영장 연작 대부분의 오브제는 반짝이는 물과 함께 등장하는 두 남자였다. artsy.net 은 두 남자에 주목했다. 호크니 고향 영국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데 그 이주한 이곳 남부 캘리포니아는 동성애자 간 가정생활을 목격하면서 얻은 폭발적인 감정을 화폭에 옮겼고 그 작품은 호크니를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려서게 했다. 수영장과 두 남자, 데이비드 호크니가 펼치는 이 시리즈는 어느 편을 감상하더라도 따듯한 캘리포니아 날씨가 만든 배경 속에 살얼음을 걷는 듯한 형용모순적인 전경의 조화가 감상의 포인트라 하고 싶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올림픽 포스터는 호크니의 수영장 연작 핵심 주제는 자연만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표현할 수 없다는 물결을 정말 신나게 그린 작품이다. 다이빙 선수 손 끝이 수영장 물 표면에 닿는 순간 그 희열과

흥분이 선수 얼굴 표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TV로 보는 올림픽 다이빙은 이 선수와 같은 표정은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첨벙하는 물소리를 기억하고 이 작품을 다시 보면 호크니 작품이 위대한 까닭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다. 이번 올림픽 유일하게 본 경기였다.

8. 6. 금.



David Hockney. Pool with Two Figures.1972

Portrait of a Artist, Pool with Two

Figures(1972), 이 작품은 '수영장의 두 남자'로 알려져 있지 David Hockney(1937 ~ , 영국) 자화상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화들짝 놀란다.

빨간 자켓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호크니 연인이고, 수영장 시리즈 뮤즈인 피터 슐레진저이다. 이 작품은 1966 년 두 작품 'Peter Getting Out of Nick's Pool' 'Sunbather'의 물결선 표현방식과 1967 년 'A Bigger Splash' 작품을 아우르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christies.com 은 '예술가로서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광채는 이상화된 수영장 풍경의 본질과 인간관계 안에 존재하는 엄청난 복잡성을 캡슐화한 작품으로 기념비적인 캔버스'라는 평을 했다.

2018년 이 작품은 생존 작가 중 최고 판매가 약 1천억 원에 거래됐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한 블로거는 이 작품이 천억 원이라니 도대체 여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며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이 말에 처음에는 나 역시 공감을 했었고, 이 글을 쓰기 전만 해도 그 가치를 십분 이해하지 못했었다. 한데 이 작품 경매 소식을 접한 theguardian.com 한 칼럼니스트는 이 작품에 대한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한다.

'이 그림은 사랑과 슬픔의 잔잔한 증류, 상한 마음에 대한 슬픈 노래이며 그 마음은 호크니의 것'이라고 말이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동성 간 사랑에 대한 무지를 깨달은 것이다. 사랑의 가치를 편협하게만 군 옹졸함이 부끄럽기도 했다

특히 수영장 연작과 관련해 호크니는 '물을 표현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색이든 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정이 없습니다.'라고 한 이 말 뜻을 호크니 사랑의 메타포 같았다. 연인인 솔레진저와 이 작품 발표 1년 전에 결별했기 때문에 더 아련했다.

호크니 고향 영국에서는 20대 청년의 커밍아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1960년대 이주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호크니는 특별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었고, 수영장 물결에서 신기한 영감을 얻었고 연작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행복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의 연인 피터 솔레진저가 호크니 수영장 연작에 모델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수영장은 사랑을 숨기지 않아도 될 호크니의 오브제였고 물결은 사랑 그 자체였고,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작품이었다.

8. 9. 월.



Peter Getting Out of Nick's Pool. 1966.

Peter Getting Out of Nick's Pool(1966) 닉의 수영장에서 나오는 피터, 이 작품과 1972년 Portrait of a Artist, Pool with Two Figures([H 갤러리] Pool with Two Figures (brunch.co.kr)) 두 작품 감상에는 피터 솔레진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테면 1966년 이 작품 속 솔레진저와 호크니는 첫 사과 같은 사랑을 시작하던 차였고, 1972년 작품 속 솔레진저는 이별을 고하는 모습였기

때문이다. 수영장 연작 속 물결 오브제는 호크니의 그림 테제였다.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그 내용은 무척 심도 있고 야심차 보이기도 했다.

한데 여기에 뮤즈의 등장은 호크니라는 작가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상징이었고 일상이며 사랑이었다. 해서 호크니 작품은 애깃거리가 풍부하다.

물결 오브제만 있었다면 호크니 작품을 감상하면서 수많은 갤러리는 철학적인 감동은 있었을지언정 호크니 작품을 프린트 물이라도 소장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런 면에서 호크니 여러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 삼을만하다. 어느 날 수영장에 비친 물결을 헤치고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내 사랑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지 않은 이가 있을까. 되물으면 당연히 뮤즈이겠지만 작가로서 놓고 싶지 않은 야망을 이루고 싶은 오브제 간 호크니는 행복한 콧노래를 부르며 이 작품을 대했을 것이다.

실제로 호크니는 여러 수영장 연작에서 물결 오브제에 대한 집착이 맹렬했다. 그만큼 수영장 연작 동안 호크니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훗날 얘기지만 '사랑 참 되다'라는 말을 이때만 해도 호크니는 자신이 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8. 12. 목.



A Bigger Splash · 1967

'침병' 하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렸을 때 본 물보라는 정확히 2 초였다. 1976년 데이비드 호크니는 2주 동안 이 Splash를 그렸고, 이외에도 수영장 물결무늬며 빛이 투과한 수영장 속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를 특별한 오브제로 삼고 맹렬한 집착을 보이는 까닭에 대해서는 찰나를 기억하는 데 있어 사진보다 그림이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호크니의 이 말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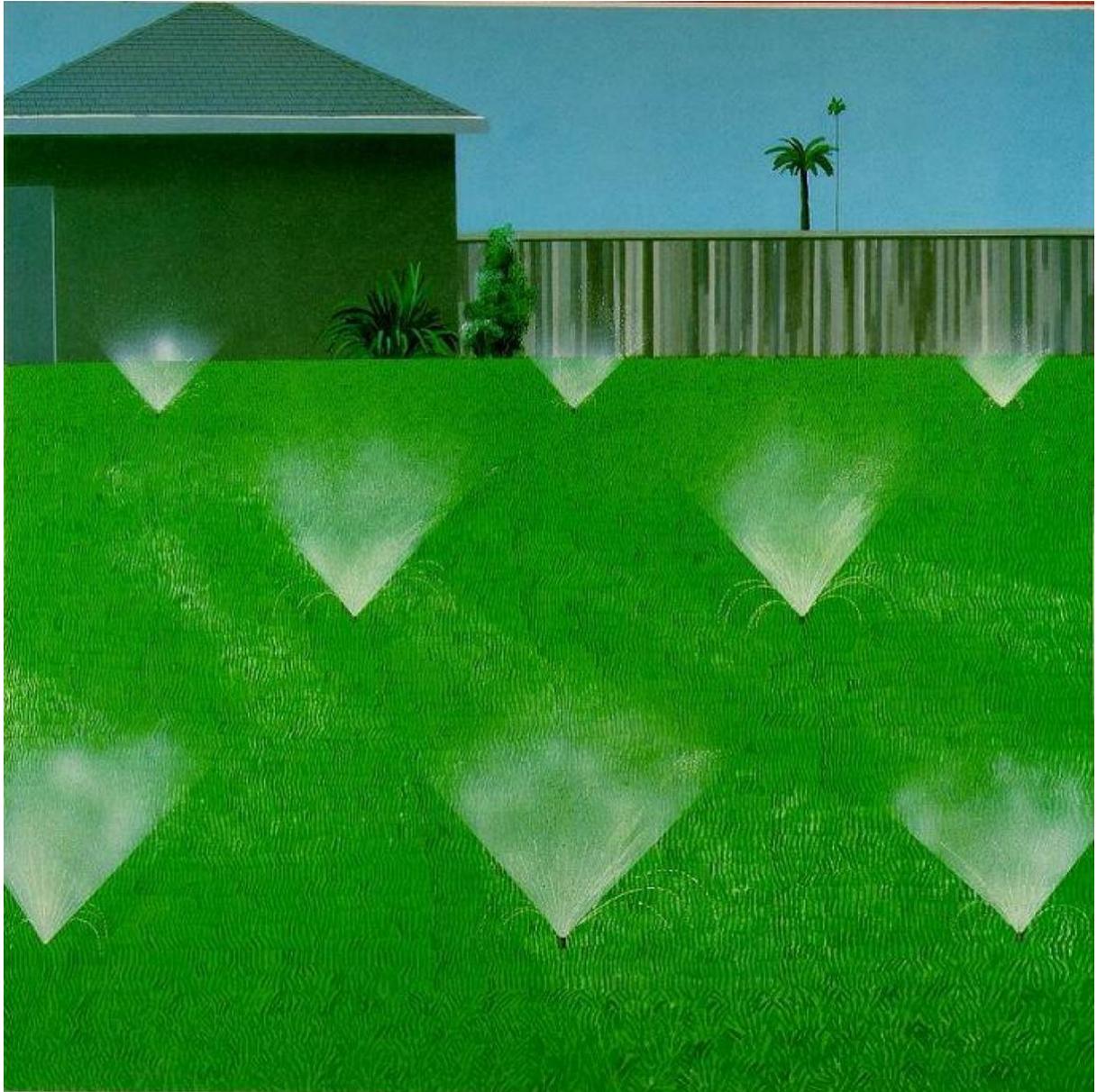
2019년 국내 전시 행사 때 갤러리가 가장 오래 머문 작품이었고, 프린트 역시 가장 많이 판매된 작품이었다.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없는 궁금증은 수만 갈래 상상을 불러일으킨 탓이다.

하지만 이 작품 백미는 침병 소리를 낸 지점을 제외한 수영장 물 표면은 고요하다는 데 있다. 그 혼한 파문도 없다는 점이다. 소리는 났지만 누구도 이 splash에 동요하고 있지 않다.

이를 두고 Edward Hopper 작품과 그 궤가 비슷하다고도 말한다. 그 보다 이런 측면이 나는 더 끌린다. 호크니가 이주한 이곳 LA는 자신이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서 그 누구도 동요하지 않는 그 강렬한 인상을 이 작품에 투영한 것이라고 말이다.

요컨대 호크니 고향 런던에서는 향유할 수 없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흥분을 이 작품에 오롯이 담았다는 것이다. 이 작품을 그렸을 당시 호크니는 뮤즈이면서 연인인 피터 슬레진저와 열애 중이었으니 침병침병 매일매일 얼마나 큰 소리를 내고 싶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고 싶다.

7. 12. 월.



David Hockney. A Lawn Being Sprinkled. 1967.

속상한 일이 있어 이 작품 A Lawn Being Sprinkled(1967)을 보고 또 보며 하릴없이 시간을 보냈다. 내가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라며 토를 달고 하소연을 해볼까도 싶었다.

한데 스프링클러가 하염없이 물을 뿌려대는 통에 피할 곳 찾기도 전에 몸이 젖고 속상한 마음까지 젖었다. 애써 피한다고 될 일 아니었던 것이다. 그냥 이 잔디밭 마냥 종일 쿨러가 내뿜는 물기를 맞고 그러다 보면 초록초록 해

질 것이다라고 마음 고쳐먹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이 작품 여러 오브제 중 스프링쿨러가 물을 뿜는 과정을 세밀하게 붓질을 했다고 한다.

딱 꼬집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쿨러를 떠난 물길의 3 단계 과정을 거친 후 잔디밭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잔디밭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이 아닌 빛이다.

호크니는 쿨러가 분사하는 물줄기 중 마지막 단계 즉, 빗처럼 사라지는 과정을 가장 그림답게 그리고 싶었다고도 한다. 괴짜다운 발상이다. 실제로 호크니가 이 작품에서 구사한 이 테크닉은 수영장 연작을 이어가는 데 있어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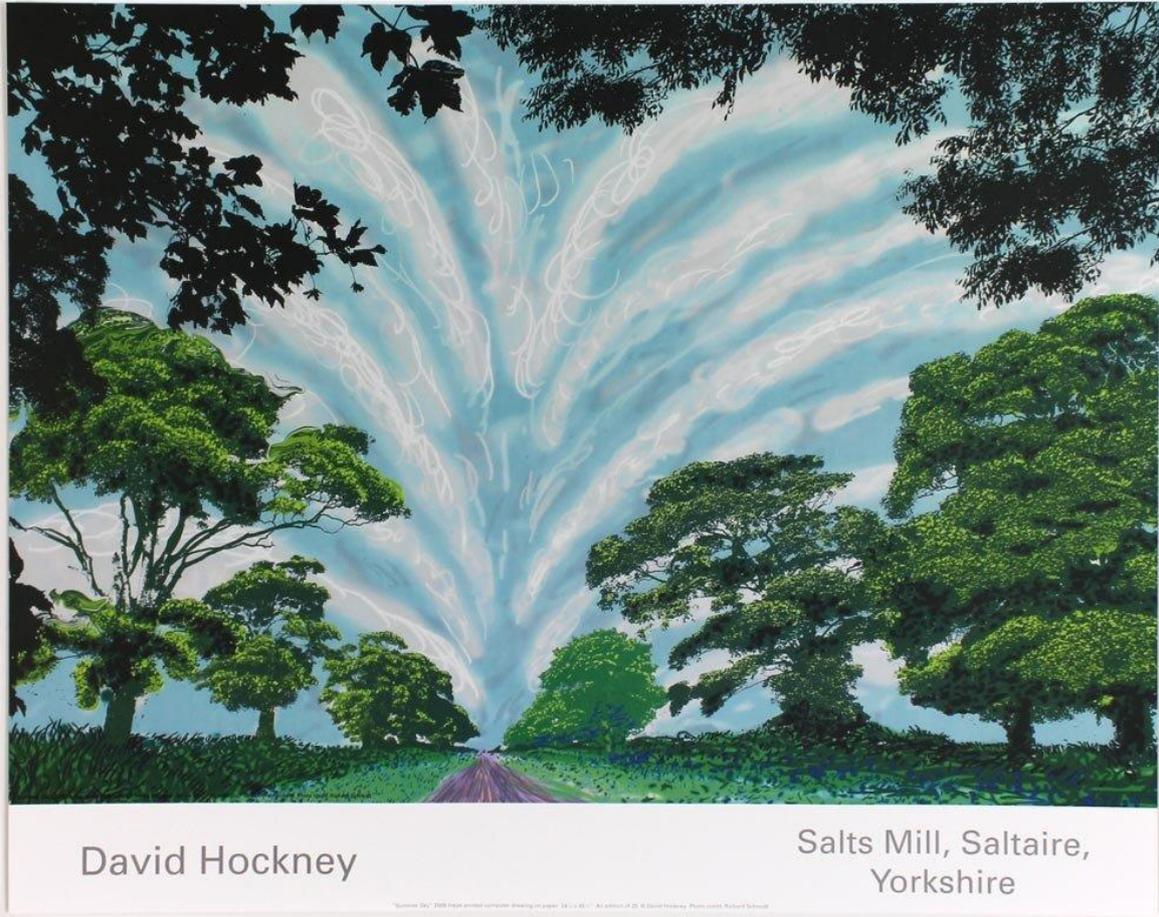
이 작품 감상 포인트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를 떠난 물기둥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이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호크니 인터뷰는 아직 찾지 못했다.

짐작컨대 호크니가 거주하고 있던 1967년 당시 로스앤젤리스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을 상징한 것은 아닐까 싶다. 자신의 고향 요크셔와는 다르게 관습과 인습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만끽한 호크니였기 때문이다.

그 기운은 새로운 도전을 추동했고, 그 서슴없이 시작한 일이 바로 이 작품 속 핵심 오브제 인 스프링클러가 분사하는 물줄기이고, 이 물줄기는 여느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물안개로 변화하는 모습을 거쳐 빛으로 잔디밭에 내려앉는 환상적인 연출을 그림답게 그려냈다.

마치 속상한 내 마음이 인기척도 없이 사라진 까닭을 호크니가 그림으로 일러주는 듯싶었다. 게다가 속상한 일도 내 삶의 한 편린의 빛이니 그리 애태우지 말라고 위로를 해 주는 것도 같다.

8. 20. 금.



Summer Road, Near Kilham. 2008.

막바지 여름, 구름이 절경이다. 사방팔방 하늘에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니 살 맛도 나고 구름이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니 계절 바뀌는 요맘때는 이 만한 맛은 없는가 싶다.

사로잡고 싶다가도 그림기도 하고 애가 타다가도 사랑스러운 양이 기막힌
사연 같아 손 내밀고 얘기 듣다가는 해 저물고 달이 차 올라도 모를
만큼이다. 이 절경을 이렇게 두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스트레스일 줄이야.

속상할 땐 데이비드 호크니 아니었던가. 'Summer Road, Near Kilham'(2008) 이 작품이 내 절경을 이어준다. 2020년 4월 호크니는 milenico.com.ar 과 인터뷰를 했는가 보다.

한데 인터뷰 내용 또한 절경이다. 예술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는 호크니 말에 나는 증인으로 나설 수 있고, 코로나 대유행은 되레 자기 삶을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는 답변을 공감했다.

자연은 우리가 보고 힘을 찾도록 가르치는 신비라는 대목에서는 구름 절경 앞에서 발길을 쉽게 돌린 나를 원망했다. 게다가 자연을 관찰하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이라는 호크니 말을 듣고는 아차, 내가 너무 속없이 서둘렀구나 싶었다.

나를 돌아볼 순수한 모험의 시간이었는데 말이다. 혹시 이렇게 그사람을 내가 대한 것은 아니었을까도 싶었다.

8. 21. 토. RAIN



Rain from the Weather Series, David Hockney, 1973



Yves-Marie in the Rain. 1973.

1973년 가을, Hockney는 파리로 이사하여 Yves-Marie Hervé를 처음 만났고 두 사람은 즉시 가까운 친구가 되어 루브르 박물관에서 끝없는 오후를 보내거나 단순히 도시를 흡수하는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Hockney는 Yves-Marie에 대한 소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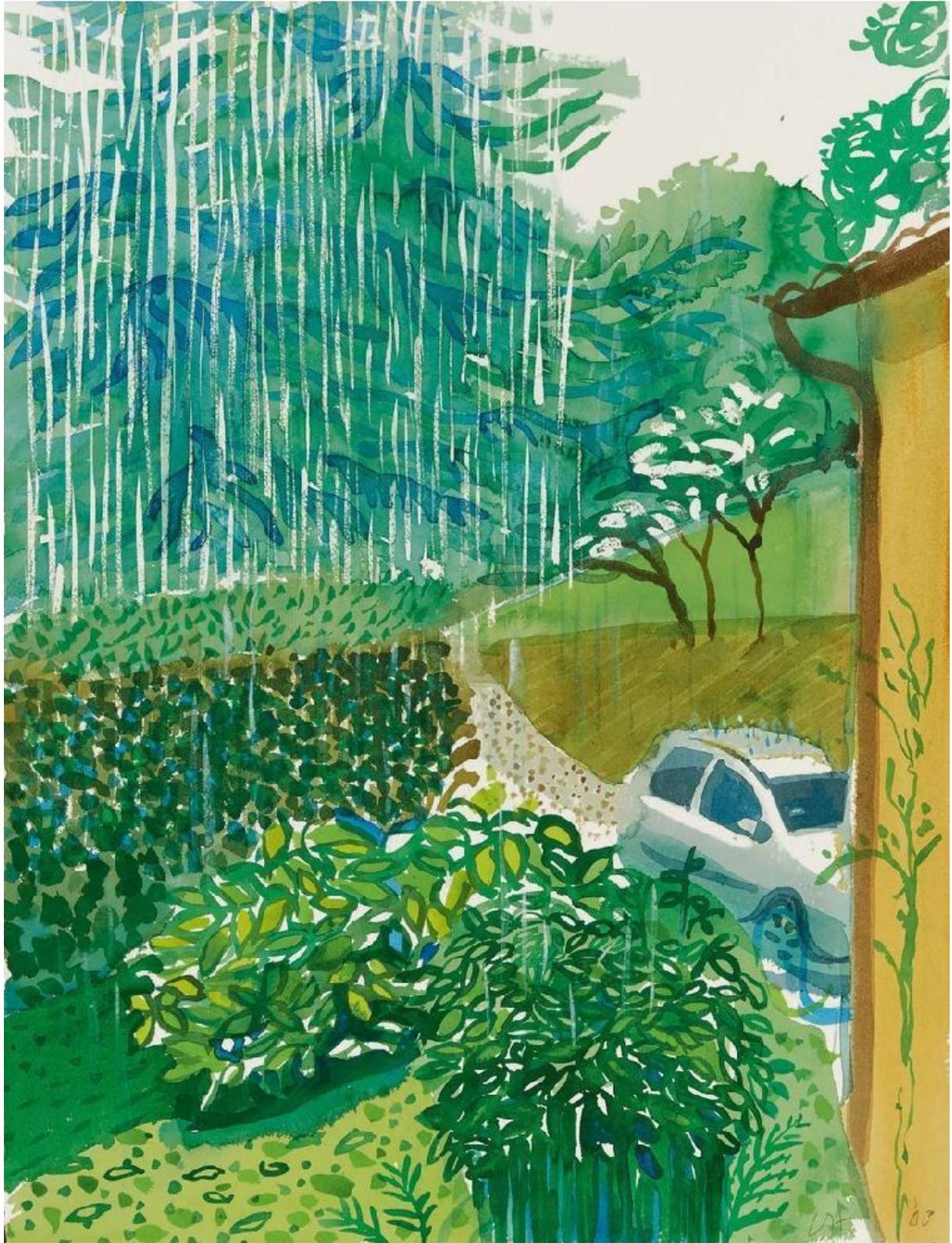
“나는 파리에서 Yves-Marie Hervé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아주 좋아했던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출처: artdependen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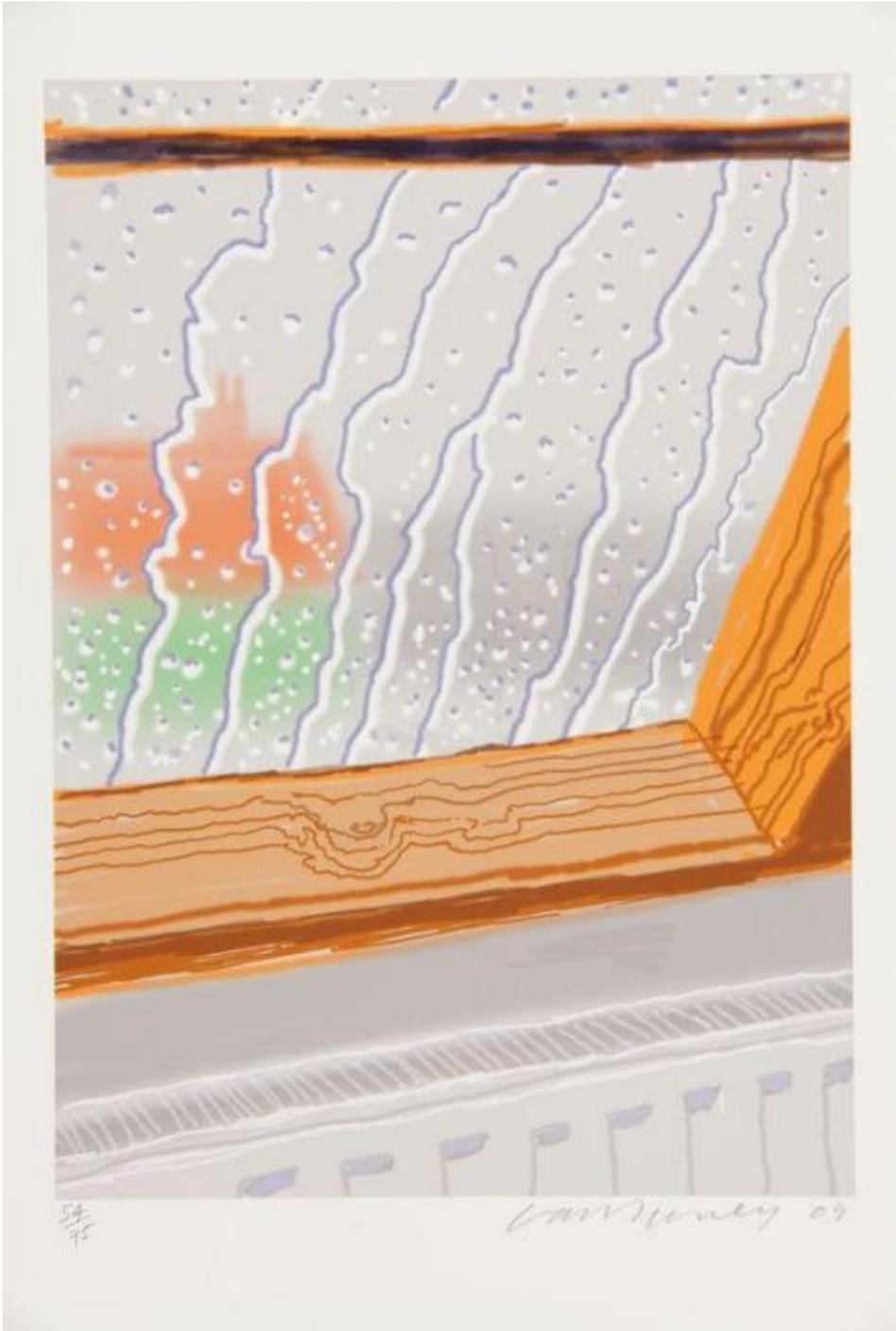
Pool on a Cloudy day with Rain. PAPER POOL 22. 1978.



Saturday Rain II. 2003



Lake House, COMO, RAIN, 2003.



Rain on the Studio Window, 2009



The Arrival of Spring, Normandy, 2020

8. 22. 일. AUT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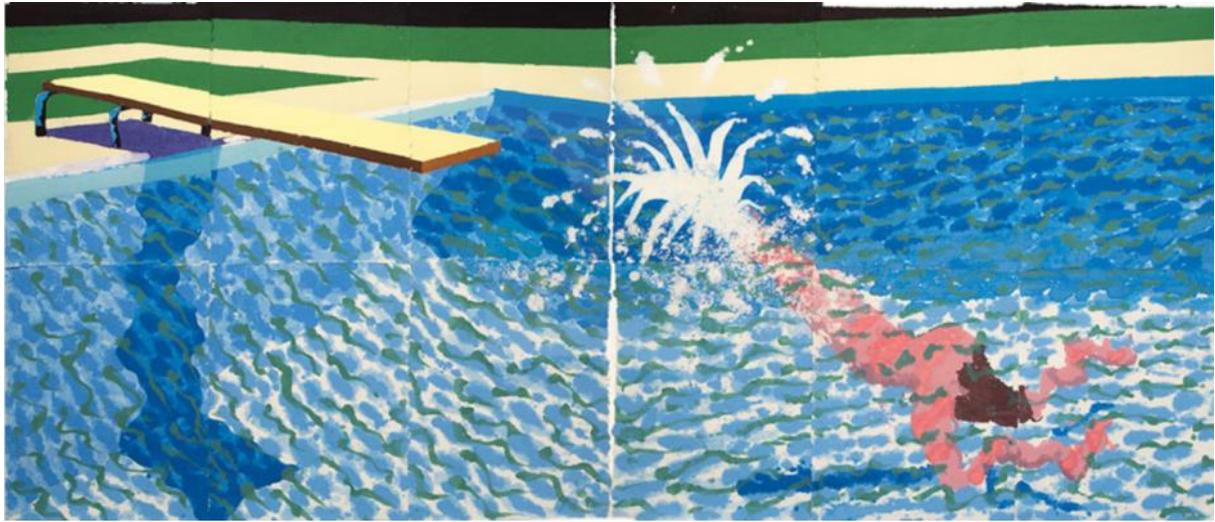


The Big Tree in Autumn (30 October 2020)



The Pond in Autumn (1 November 2020)

Epilog



A Large Diver. Paper Pool27. 1978. colored and pressed paper pulp 72x171 in. <출처: hockney.com>

'속상할 때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한 마디로 시작한 8 월이었다.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처음 알았고, 2019 년 호크니 서울 전시회 때는 땀별 아래 1 시간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시회는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다. 데생 작품이 꽤 많았고 꼭 보고 싶은 원작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때 아쉬움이 내내 있었던 것 같다. 이번만큼은 호크니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었다. 속상할 때 데이비드 호크니라고 말한 것은 호크니 첫 작품을 컬렉팅 할 때 속상한 일이 있어 붙인 이름이었는데 작품을 본 후에 속상함이 말끔히 사라지는 느낌이 좋아서 몇차례 썼던 것 같다.

수영장 시리즈를 탐색하던 차에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 작품을 어떻게 시작했고, 이 주제를 통해 얼마만큼 거듭났는지가 꽤 흥미로웠다. 이에 대한 여러 평론가 중론은 그가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 이사온 사건을 중요시 여겼다. 호크니가 태어나고 자란 영국 요크셔 지방과는 전혀 다른 도시 풍경이 호크니를

사로잡았고, 그중 수영장은 호크니에게 정말 충격적인 서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수영장은 호크니의 가장 빛나는 사랑과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이별을 함께 한 작품이었다. 수영장과 빛이 일구는 오묘한 조화와 균형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상징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특히 '수영장의 두 남자'(Portrait of a Artist, Pool with Two Figures. 1972)는 사실 호크니 자화상이라는 점을 알았을 때 가슴이 아렸다. 이별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호크니 수영장 시리즈는 내게 사랑을 대하는 한 사람의 특별한 감정의 한 순간처럼 보였다. 아련아련한 내 사랑흔도 모닥불처럼 일어나는 것도 같았다. 현존하는 작가 중 가장 그림값이 비싼 호크니 작품을 이렇게 내 맘대로 해석해도 되는 가 싶었지만 대작가 호크니는 아름다운 흔적이니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한마디 해 줬을 것이다.



David Hockney applies color pulp with a turkey baster into cookie-cutter mold for Steps with Shadow from his Paper Pools series, Tyler Workshop Ltd. paper mill, Bedford Village, New York, 1978. Photographer: Lindsay Green.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Canberra. Gift of Kenneth Tyler, 2002. <출처: artsy.net>

수영장 시리즈는 Paper Pool 이란 소재를 탄생시켰다. 짐작컨대 이 재료의 발견은 수영장 시리즈가 아니었더라면 각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Paper Pool 은 종이를 으깨서 펼친 다음 그 위에 물감 칠을 하는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호크니가 이 기법을 창안한 것은 수영장 물 표면으로 투과하는 빛이 자아내는 숨쉴 수 없는 공간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낳은 산물이다. 요컨대 그림을 가장 그림답게 그리기 위해 찾은 기법이어서 그의 탐구 능력과 창의력에 박수를 보낼 뿐이다.

수영장 시리즈로 시작한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한 탐구는 2 가지를 얻었다. 하나는 수영장 시리즈가 호크니 작품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다른 하나는 이 수영장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호크니는 미술계에 기리 남은 소재를 테크니컬 하게 쓰는 방안을 남긴 점이다. 여기까지가 호크니 시즌 1 이라고 할 수 있다. 시즌 2 는 수영장 시리즈 이후 부터 아이패드 페인팅 전까지 짬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을을 기다리는 까닭이기도 하다.